

2010.05.03 미래정책연구실

□ **농업식량안보기금 출범**1) **USDA 보도자료(2010.04.22) 주요 내용**

- 미국 재무부에서 개최된 **주요국 재무장관회의**에서 세계 기아와 빈곤에 대처하기 위해 **8억8천만 달러의 농업식량안보기금이 출범**했으며 세계 공공 및 민간 부문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
 - 이 기금은 작년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때 설립
 - 세계농업식량안보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기금에 빈곤국의 식량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미국은 4억 7천 500만 달러를 출연하고, 설립 회원으로써 캐나다 2억 3천만 달러, 스페인 9천 5백만 달러, 한국 5천만 달러, 빌 게이츠 재단 3천만 달러를 출연
- 가이트너(Tim Geithner) 미 재무장관은 보다 강하고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세계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일하는 것과 같이 세계 기아와 빈곤을 저지하기 위한 책무를 새롭게 해야만 한다고 발언
 - 10억 이상의 인구가 기아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세계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음. 제한된 자원과 거대한 세계 도전에 직면한 시점에 이 기금은 기아에 대항하고 농업 생산성과 성장 향상을 지원
- 이 기금은 **개발도상국 빈곤층의 식량 안보와 소득을 증진**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.
 - 2008년 식량 가격의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추가로 1억 명의 인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되었음. 식량 가격 상승 이전에도 빈곤국의 8억 5천만 명의 인구가 만성적 영양실조였음. 개발의 주요 요소인 농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낮은 투자와 기후 변화와 같은 이슈들에 영향을 받아왔음.
 - 2015년까지 1일 소득 1달러 미만의 인구를 1995년 수준의 절반으로

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.

- 빈곤국의 농업부문 원조라는 목표와 함께 이 기금은 농업 전략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국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**공공 및 민간 부문의 2개 창구를 개설**할 것임.
 - **공공 부문**은 농부들을 시장에 연계시키고 수확 후 창고를 건축하고 보다 나은 관개 시스템을 제공할 것임.
 - **민간 부문**은 중소 농기업 및 농민들의 상업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금융지원 사업을 제공할 것임.
 - 지금까지 농업 발전에 15억 달러를 지원한 빌 게이츠 재단의 Gates 이사장은 소농에 투자하는 것은 기아와 극심한 가난과 싸우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역사가 여러 차례 이를 증명했다고 발언하였으며 다른 국가들도 이 기금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함.
- 이날 출범식에는 미국 Tim Geithner 재무장관과 Tom Vilsack 농무장관, 스페인 Elena Salgado 재무장관, 캐나다 Jim Flaherty 재무장관, 세계은행 Robert B. Zoellick 총재, 게이츠재단의 Bill Gates 이사장 등이 참석.
 - **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**은 한국은 경제개발 초기단계인 1960년대 심각한 빈곤과 식량부족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한국이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모범국가인 만큼 풍부한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농업부문 등에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함.

□ **USDA, 농업 에너지 관리 및 효율성**1) **USDA 보도자료(2010.04.22) 주요 내용**

- **Tom Vilsack 농무장관**은 농업 생산자들이 보다 에너지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
 - 이 계획이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에너지와 재정 모두 절약할 수 있도록 고안된 개별 농가 **에너지 진단 또는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(energy**

audit)에 이용 가능한 기금을 조성할 것임.

- 미국 농장과 목장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것은 농산물 생산자들의 이윤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이 보다 에너지 독립적인 나라가 되도록 돕는 일이라고 발언
- 이 계획을 통해 생산자들은 개별적으로 농업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와 에너지 관리 및 효율성 정책 이행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될 것임.
- 2010년 회계연도에 EQIP(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)를 통해 2백만 달러가 29개 주의 약 1,000여 곳의 농업 에너지 진단을 위해 조달됨.
- 에너지 감사는 원유 냉각, 관개 양수, 가축 생산 시설의 난방 및 냉방, 거름 수집 및 전환, 곡물 건조 등과 같은 일반적인 농업 활동에 이용되는 농가의 주된 에너지 사용 범위를 각각 보장하기 위해 개별적 맞춤형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임.
- 작업이 보다 에너지 효율적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농가 에너지 진단 제공이라는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초기 이행이 시작될 것임.
- 장기적 목표는 각각의 농가 에너지 진단을 통해 권고된 사항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행하는 농업 에너지 관리 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할 것임.

□ 원당 가격 고공 영진

1) Economist(2010.04.26) 주요 내용

- 미국 원당 가격은 지난해에 2배로 뛰었고 올해 2월에는 파운드당 20 센트로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지난달에는 약간의 조정을 겪음.
- 가격 상승으로 과자류와 달콤한 씨리얼을 생산하는 Hershey, Kraft, General Mills와 같은 생산업체는 정부가 설탕 수입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가격을 높이고 근로자들을 해고하겠다고 경고함.
- 워싱턴 D.C.에 근거지를 둔 무역 그룹인 America Sugar Alliance에

따르면 미국인은 1년에 평균 44파운드(20kg)의 설탕을 섭취함.

- 높은 설탕 가격의 원인은 대부분 소비 급증 때문임. 사탕수수와 사탕무에서 생산되는 설탕의 25% 이상을 먹는 것을 의미함. 미국은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설탕 수입국임.
- 전 세계적으로도 개도국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쿠키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.
- 그러나 공급은 제한적으로 지난 해 폭풍우 등 좋지 않은 기후로 인도와 멕시코의 설탕 작물이 피해를 입었음.
- 설탕의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은 현재 에탄올 생산에 사탕수수의 절반 가량을 사용하고 있음.
- 설탕은 제조되는 식품의 70%에 원료로 사용되어 설탕 생산자들은 비탄력적인 수요로부터 이익을 남기도록 설탕작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.